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09호

2019.07.25(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mu.kr

10원 인상도 제시 못했다!

26일(금) 2시간 파업 돌입!

임금동결 안된다!

25일(목) 14시 보쉬에서 9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6월 27일 교섭결렬 이후 4주만에 열린 자리였다. 사측은 1차 제시안을 냈지만, 임금인상안은 없었다. 김정태 지부장은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임금동결은 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임금동결을 얘기하는 사업장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 사업장은 그런 사업장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부 요구안에 대해 의견 접근되면 임금교섭은 지회별로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임금동결이다. 지부가 그 책임까지 지회에 넘기는 건 안될 것 같다. 최소한 임금동결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고, 대표이사 승인없이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10원짜리 권한도 없는 사측 교섭위원들!

지부 교섭위원들의 요구는 최소한 임금동결은 아니라는 사측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임금인상 최종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측 교섭위원들은 10원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정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사측 교섭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인상액을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결이 아니라는 상징적 의미의 1차 제시안이라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대표이사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임금인상 쟁취! 26일 2시간 파업!

김정태 지부장은 “내일 2시간 파업 들어가겠다.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들 분노가 어떤지 확인해봐라. 다음 교섭에서 임금동결이 아닌 제시안 갖고 오라.”고 파업투쟁을 선포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부 쟁대위는 이미 이번주 교섭까지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할 경우, 26일 2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쟁대위 지침에 따라 26일 2시간 이상 파업을 지회별로 진행한다. 지부교섭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각선교섭 사업장도 공동파업투쟁 전선을 구축한다.

이번 파업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지역 자본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파업이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동결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본에게 확실한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자. 2019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26일 위력적인 파업투쟁을 벌이자!

9차 교섭 속기록

임금동결 용납 못한다!

노 : 전국 상황을 보니 올해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데가 많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업장이 없기를 바란다. 금속노조 방침이 임금동결은 승인할 수 없다. 오랜만에 봤으니 회사 제시안 받았으면 한다. 회사가 임금동결을 안한다는 1차 제시안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종안이 아니어도 된다. 올해도 최소한 임금인상은 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를 보여줘라. 충분히 1차 제시안 정도로는 낼 수 있다고 본다. 회사측 관계자들이 그런 걸 분명히 선언하면 좋겠다.

사 : 지부장님이 무거운 말로 시작했다.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52시간 최저임금, 유해물질, 소방법 등이 강화돼서 경영하면서 범죄자가 되는 지경까지 왔다. 경영자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무역전쟁, 한일관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 우리는 원자재 100%를 일본에 의지한다. 다른 업체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각 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주시고, 희망을 갖고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1차 제시안>

노 : 2019년 임금인상은 '추후제시'라고 했는데, 올해 임금인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본다. 최종안이 아니어도 좋다. 지부 차원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회 요청하고 임금 1차안을 제출해주면 좋겠다.

사 : 정회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승인없이 제출하기 어렵다. 임금동결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시안은 어렵다.

노 : 오늘 교섭 이후에 또 휴가와 휴일이 걸려서 3주

간 건너뛰고 8월 22일밖에 교섭일이 안나온다. 지부 요구안 의견접근되면 임금은 지회별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자꾸 임금동결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지부가 그 책임까지 지회에게 넘기는건 안될 것 같다. 최소한 임금동결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

사 : 사용자는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안했다.

노 : 협의를 안했어도 1차 제시안도 못내나? 최종안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사 : 금번 교섭에서는 우리가 있을 것 같다. 추후에 날 잡아서 교섭하더라도 오늘 임금제시는 어려울 것 같다. 1차 제시안이라도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하다.

노 :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만한 권한 있는 분들이 교섭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 제시안 보니까 고용보장, 정년연장은 빼냈고,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도 지회 교육시간이랑 연결시켰다. 이 제시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도 정회를 요청한건, 자꾸 임금동결이 들려와서 지부교섭에서 시측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다. 지부는 내일 2시간 파업 들어가겠다. 조합원들도 계속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임금동결 얘기가 나오니 불안해한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한건데, 해결을 못하겠다고 하니 내일 파업에서 조합원 분노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다음 교섭에서 임금 동결 아닌 제시안 갖고 오셔라. 지부 사업장들이 2주에 걸쳐 휴가가 있고 8월 휴가 이후 첫 교섭일이 광복절이다. 요일 변경해서 교섭할 수 있으면 열자.

사 : 중앙 상황 보고, 실무에서 교섭일정 정하자.